

배포일시	2010. 1. 25.(화) 11:00 (총10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당자	대장 이명수
		전화번호	053-952-0366

대구·경북 2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겨울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주의
- 경북북부, 동해안지방 중심으로 대설
-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관리 주의
- 강풍·풍랑으로 인한 시설물과 선박 관리 주의

□ 2월 기상특성

- 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한파가 찾아오기도 함.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옴.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함.

□ 2월 대표적 기상재해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2월 평균 눈 일수는 봉화가 5.5일로 가장 많고, 영주 5.4일, 상주 4.7일로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 2006년 2월 7일에는 대구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5~15cm의 눈이 내렸고, 2010년 2월 16일에 울진에 신적설 27.6cm를 비롯하여 경북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0~30cm의 많은 눈이 내렸음.

○ 한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06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2월 4일 최저기온이 봉화 -18.0℃, 의성 -16.3℃, 안동 -14.5℃, 포항 -10.7℃, 대구 -10.1℃를 기록하였음.

○ 강풍, 풍랑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1998년 2월 8일에 일 최대순간 풍속이 울진 41.0㎧, 영주 35.8㎧, 안동 22.6㎧, 대구 21.0㎧, 포항 20.8㎧ 등 강풍이 불어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있었음.

○ 가뭄, 건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대구, 경북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겨울철 가뭄이 옴. 2000년 2월은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0.3mm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적어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첨부 : 2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3-952-0366, <http://www.kma.go.kr>



2월 기상특성과 재해 정보(대구경북)

- 강풍, 겨울 가뭄으로 인한 화재 주의,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관리 주의 -

대구 기상 대
2011년 1월 25일 11시 발표

□ 2월 기상 특성

- 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한파가 찾아오기도 함.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옴.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함.

□ 2월 대표적 기상 재해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2월 평균 눈 일수는 봉화가 5.5일로 가장 많고, 영주 5.4일, 상주 4.7일로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 2006년 2월 7일에는 대구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5~15cm의 눈이 내렸고, 2010년 2월 16일에 울진에 신적설 27.6cm를 비롯하여 경북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0~30cm의 많은 눈이 내렸음.

표 1. 지점별 2월 평균 눈 일수

(단위 : 일)

지 점	대구	울진	안동	상주	포항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눈일수	2.9	3.5	3.9	4.7	2.2	5.5	5.4	5.1	2.7	3.3	3.7	3.0

○ 한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06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4일 최저기온이 봉화 -18.0℃, 의성 -16.3℃, 안동 -14.5℃, 포항 -10.7℃, 대구 -10.1℃를 기록하였음.

○ 강풍, 풍랑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1998년 2월 8일에 일 최대순간 풍속이 울진 41.0㎞, 영주 35.8㎞, 안동 22.6㎞, 대구 21.0㎞, 포항 20.8㎞ 등 강풍이 불어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있었음.

○ 가뭄, 건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겨울철 가뭄이 음. 2000년 2월은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0.3mm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적어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표 2. 대구·경북 2월 강수량 최저 순위 (단위 : mm)

순위	1	2	3	4	5
강수량	0.0 (1977년)	0.3 (2000년)	1.1 (2002년)	3.5 (2008년)	6.1 (1980년)

※ 붙임 : 2월 지역별 기상자료 및 재해 자료

[붙임]

2월 지역별 기상자료 및 재해 자료

대구기상대

1. 지역별 평년 기후값

□ 평균기온(°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0.1	1.5	2.5	-0.5	1.5	-1.9	-1.1	1.3	-2.5	-0.2
중 순	1.9	3.4	4.2	1.5	2.8	0.1	0.8	2.7	-0.3	1.7
하 순	2.7	4.1	4.8	2.4	3.5	1.0	1.6	3.4	0.8	2.3
평 균	1.5	3.0	3.8	1.1	2.6	-0.3	0.4	2.5	-0.7	1.3

□ 최저기온(°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5.0	-3.0	-1.5	-5.8	-2.8	-7.5	-6.1	-3.3	-9.5	-5.9
중 순	-3.3	-1.2	0.1	-3.9	-1.5	-5.4	-4.3	-1.9	-7.1	-4.1
하 순	-2.5	-0.5	0.8	-2.9	-0.9	-4.5	-3.6	-1.3	-5.8	-3.5
평 균	-3.6	-1.6	-0.2	-4.2	-1.7	-5.8	-4.7	-2.2	-7.5	-4.5

□ 최고기온(°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5.9	6.9	7.5	5.7	6.6	3.7	4.3	6.7	5.6	6.3
중 순	7.7	8.7	9.0	7.7	7.7	5.8	6.3	8.1	7.6	8.2
하 순	8.3	9.3	9.4	8.4	8.1	6.7	7.2	8.6	8.3	8.8
평 균	7.3	8.3	8.6	7.3	7.5	5.4	5.9	7.8	7.2	7.8

□ 강수량(mm)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7.0	5.4	8.9	6.1	9.9	5.6	6.6	8.9	5.6	5.6
중 순	12.4	10.2	16.7	10.3	18.0	11.4	11.0	15.3	8.9	9.7
하 순	12.4	12.5	15.1	11.8	13.3	11.7	11.5	13.3	10.3	12.1
평 균	31.7	28.1	40.7	28.2	41.2	28.7	29.1	37.5	24.8	27.4

※ 평년기간 : 1981~2010년

2. 2월 기후 극값

□ 일최저기온(℃) 최저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36.02.05	-16.4	1926.02.06	-14.9	1913.02.09	-14.8	1943.02.01	-14.7	1910.02.02	-14.5
울진	1981.02.26	-14.1	1984.02.07	-13.5	1977.02.16	-13.4	1991.02.23	-13.3	1981.02.27	-12.5
안동	1984.02.10	-16.9	1977.02.17	-16.8	1977.02.18	-16.0	1991.02.24	-15.2	1984.02.03	-15.2
상주	2006.02.04	-12.4	2005.02.01	-12.1	2006.02.03	-11.8	2010.02.07	-11.3	2005.02.22	-10.6
포항	1957.02.11	-13.4	1953.02.16	-13.2	1953.02.01	-13.2	1984.02.07	-12.8	1977.02.16	-12.8
봉화	1991.02.24	-19.8	1999.02.04	-19.3	1996.02.07	-18.9	2004.02.06	-18.7	1995.02.01	-18.5
영주	1977.02.17	-20.7	1986.02.07	-18.8	1984.02.10	-18.8	1977.02.18	-18.8	1991.02.24	-18.4
문경	1996.02.07	-15.3	1991.02.23	-15.1	1984.02.10	-14.9	1981.02.26	-14.8	1984.02.03	-14.7
영덕	1984.02.07	-13.5	1977.02.16	-13.4	1991.02.23	-12.8	1981.02.26	-12.8	1983.02.10	-12.3
의성	1977.02.17	-20.0	1991.02.23	-19.5	1984.02.08	-19.4	1984.02.03	-19.0	1991.02.24	-18.9
구미	1977.02.17	-16.7	1984.02.10	-16.4	1977.02.18	-15.7	1980.02.07	-15.4	1977.02.19	-15.2
영천	1984.02.10	-16.0	1977.02.17	-15.0	1996.02.07	-14.8	1984.02.01	-13.9	1980.02.05	-13.9

□ 최심신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52.02.25	19.0	1958.02.02	17.5	1994.02.11	17.0	1937.02.02	10.2	1969.02.04	9.0
울진	2010.02.16	27.6	1994.02.12	20.2	1996.02.16	18.9	1996.02.18	18.0	1998.02.04	14.9
안동	1975.02.18	12.5	1987.02.03	7.5	2006.02.07	5.7	1986.02.18	5.7	2010.02.13	5.5
상주	2003.02.08	12.3	2006.02.07	8.0	2004.02.04	7.4	2010.02.13	4.7	2010.02.11	3.7
포항	1964.02.25	16.0	1996.02.18	11.8	1975.02.18	9.0	1987.02.03	7.3	1975.02.19	6.5
봉화	2001.02.24	11.0	1998.02.09	8.7	2006.02.07	8.6	2001.02.15	8.2	2004.02.14	6.0
영주	1996.02.18	16.2	2001.02.15	11.7	1986.02.18	11.5	1975.02.18	10.2	1998.02.09	10.1
문경	2006.02.07	14.5	2003.02.08	9.8	2004.02.04	8.5	2001.02.15	8.5	2001.02.24	8.3
영덕	1974.02.02	16.8	1987.02.03	15.1	1996.02.16	14.4	1998.02.09	8.9	2006.02.07	8.8
의성	1975.02.18	8.3	1987.02.03	7.7	1982.02.04	7.6	1983.02.09	7.1	1994.02.11	5.4
구미	1994.02.11	12.2	1986.02.18	6.8	1982.02.04	5.6	2006.02.07	5.0	1980.02.18	4.9
영천	2006.02.07	8.6	1987.02.03	6.8	1982.02.04	6.3	1981.02.16	5.8	1994.02.11	5.3

□ 최심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52.02.26	22.0	1969.02.01	21.5	1969.02.04	20.7	1994.02.12	20.3	1969.02.05	19.3
울진	2010.02.16	28.6	2010.02.17	28.5	1990.02.01	28.5	1975.02.19	26.2	1990.02.02	25.0
안동	1990.02.01	20.9	1975.02.19	13.0	1975.02.18	12.5	2010.02.13	9.4	1986.02.18	8.7
상주	2003.02.08	12.3	2010.02.13	8.9	2004.02.05	8.5	2003.02.09	8.5	2006.02.07	8.0
포항	1964.02.25	17.0	1975.02.19	15.5	1996.02.18	11.8	1975.02.18	9.0	1996.02.19	8.5
봉화	2001.02.24	12.2	2001.02.25	12.0	1990.02.01	11.4	1998.02.09	8.7	2006.02.07	8.6
영주	1986.02.18	16.5	1996.02.19	16.2	1996.02.18	16.2	1990.02.01	12.0	2001.02.15	11.7
문경	1990.02.01	36.8	1990.02.02	17.3	1990.02.03	16.2	1990.02.04	14.9	2006.02.07	14.5
영덕	1974.02.02	27.9	1974.02.03	23.2	1974.02.04	16.8	1974.02.07	16.6	1974.02.08	16.4
의성	1990.02.01	13.6	1975.02.19	10.1	1992.02.01	9.6	1994.02.12	8.5	1975.02.18	8.3
구미	1990.02.01	24.2	1994.02.12	14.8	1994.02.11	12.2	1990.02.02	9.8	1974.02.08	8.3
영천	1990.02.01	12.6	2006.02.07	8.6	1994.02.12	7.6	1992.02.01	7.1	1987.02.03	7.0

□ 일최대풍속(m/s)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20.02.10	19.3	1949.02.27	17.3	1955.02.11	16.7	1949.02.04	16.7	1918.02.26	16.7
울진	1979.02.17	21.7	1987.02.03	21.0	1985.02.21	18.7	1975.02.25	17.5	1980.02.02	17.3
안동	1991.02.21	16.7	1988.02.02	16.7	1988.02.06	15.7	1983.02.18	13.7	1985.02.23	13.0
상주	2007.02.14	11.6	2005.02.01	11.1	2004.02.14	10.3	2009.02.20	10.2	2006.02.03	9.9
포항	1951.02.27	28.3	1954.02.14	27.8	1952.02.02	25.5	1961.02.12	23.3	1954.02.26	20.2
봉화	2000.02.08	9.6	2000.02.21	8.7	1994.02.21	8.5	2000.02.16	8.3	2007.02.15	8.2
영주	1998.02.08	19.5	1985.02.22	16.0	1985.02.21	16.0	2000.02.15	15.5	1974.02.22	15.5
문경	2000.02.15	12.4	2000.02.08	12.2	1977.02.21	12.0	1974.02.25	11.0	1973.02.06	11.0
영덕	1975.02.25	19.0	1975.02.17	17.0	1973.02.24	16.5	2000.02.08	16.2	1973.02.23	16.0
의성	1991.02.21	13.5	1981.02.26	11.0	2000.02.15	10.6	2000.02.14	10.6	1991.02.04	10.5
구미	1973.02.06	15.0	1991.02.21	14.5	1977.02.21	14.5	1988.02.06	14.0	1988.02.02	14.0
영천	1988.02.02	14.0	1988.02.06	13.5	2000.02.08	12.8	1988.02.03	12.5	2000.02.16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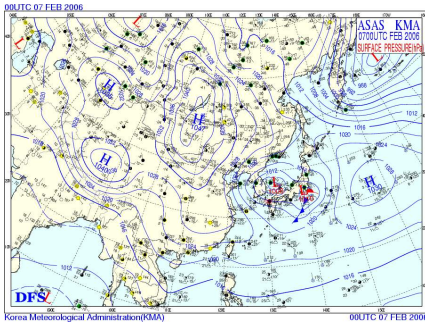
□ 일최대순간풍속(m/s)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81.02.26	26.0	1981.02.10	25.3	1980.02.03	25.2	1980.02.05	24.1	1973.02.24	24.0
울진	1998.02.08	41.0	1987.02.03	36.0	1985.02.21	35.1	2004.02.14	29.2	1991.02.21	26.9
안동	1991.02.21	24.1	1998.02.08	22.6	1985.02.21	21.3	1988.02.02	21.2	1999.02.02	20.9
상주	2005.02.01	21.6	2007.02.14	19.6	2004.02.14	18.5	2002.02.17	18.2	2002.02.11	18.0
포항	1985.02.09	24.6	1985.02.21	24.2	1974.02.06	23.0	1976.02.28	22.2	1985.02.23	22.1
봉화	1991.02.21	17.4	1994.02.21	16.5	1992.02.24	15.8	2007.02.15	15.1	2007.02.14	15.1
영주	1998.02.08	35.8	1998.02.09	23.1	2007.02.14	22.2	1998.02.10	21.2	2007.02.15	20.8
문경	2005.02.01	18.7	2004.02.14	18.2	1993.02.22	18.2	2007.02.14	18.0	1994.02.21	17.8
영덕	2009.02.14	26.6	2005.02.23	23.2	2004.02.14	23.1	2000.02.08	22.1	2001.02.23	21.6
의성	2004.02.14	19.2	2005.02.01	16.8	2007.02.14	15.8	2004.02.03	15.5	1996.02.05	15.3
구미	1994.02.02	19.6	1994.02.21	18.9	2004.02.14	18.7	1994.02.09	18.2	2004.02.22	15.3
영천	2007.02.14	20.7	2005.02.01	20.2	2004.02.14	17.3	2002.02.11	17.0	2004.02.03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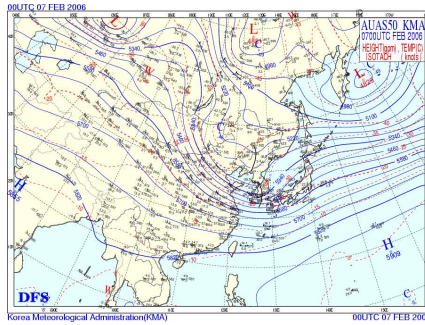
3. 기상재해 사례

□ 대설(2006.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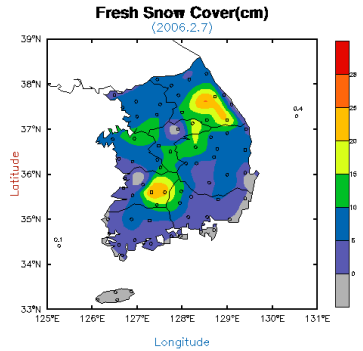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은 동해상에 위치하고,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전면에 들었음. 500hPa에는 바이칼호 남쪽에 -46℃의 강한 한기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로 유입되었음. 대구, 경북지방에는 7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대부분 지방에 5~15cm의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교통이 통제되었음.



기상일기도(2006. 2. 7. 09시)



500hPa 일기도(2006. 2. 7. 09시)



신적설 분포도(2006. 2. 7)

○ 지점별 최심신적설(2006.2.7)

지역	신적설 (cm)	지역	신적설 (cm)
대구	4.0	상주	8.0
문경	14.5	안동	5.7
영주	9.0	의성	5.3
영덕	8.8	구미	5.0
봉화	8.6	울진	4.3
영천	8.6	포항	0.6

○ 대설 피해 관련 기사

대구·경북 대설주의보...15곳 교통 통제

7일 오전 대구·경북지역에 내린 눈이 영하의 기온 속에 얼어붙어 일부 지역에서 교통이 통제되는 등 차량 운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대구시 달성군 정대리에서 철티재까지 10km 구간 등 달성지역 5곳과 동구 팔공산 중대검문소에서 백안삼거리간 10km 구간의 교통이 통제됐다.

또 경북지역도 칠곡군 한티재 정상부근 908번 지방도 2.5km와 청도군 오산1리에서 철티재 정상간 5km 구간 등 칠곡, 청도 지역 5곳을 비롯해, 군위, 안동, 경산, 영덕 등 4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눈이 내리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빙판길에 얽화알뜰살과 모래를 뿌리는 등 제설작업에 들어갔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계속되는 데다 출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눈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경북 문경에 10.3cm가 내린 것을 비롯해 영천 8.5cm, 영주 7.7cm, 상주 7cm, 대구, 안동, 봉화 각 4cm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동해안 일대를 제외한 대구·경북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연합뉴스)

기사 작성일 : 2006년 02월 07일

2006. 2. 7. 연합뉴스

대설주의보 내린 경북 고갯길 곳곳 교통 통제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7일 오전 안동-청송, 안동-봉화 간 가렛재 등 경북 곳곳의 고갯길이 쌓인 눈으로 교통 두절됐다. 안동기상대가 오전 9시까지 축정한 적설량은 문경이 12cm로 가장 많고 영양 8.5cm, 영주 8.1cm, 상주 8cm, 청송 7cm, 봉화 6.5cm, 안동 5.6cm, 의성 5cm 순이다.

경주에서는 2.5cm의 적설량을 보이며 이날 오전까지 외동면-양남면 둔지재와 석굴로 7cm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11cm의 강설량을 보인 산내면 일부 도로는 교통 두절됐다.

포항에서는 6일에 이어 미륵재(오전) 항공기와 여객선이 모두 결항했고, 청도에서도 각북면 오산1리-대구 달성 가창댐 삼거리 간 교통이 통제됐다.

이 밖에 문경-예천 청송 영양 등 경북 산간마을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거나 교통이 두절됐다가 오후 들면서 차츰 눈이 녹아 차량 운행이 재개됐다. 울릉도에는 지난 2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7일까지 42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 섬 전체가 20여 일 만에 설국으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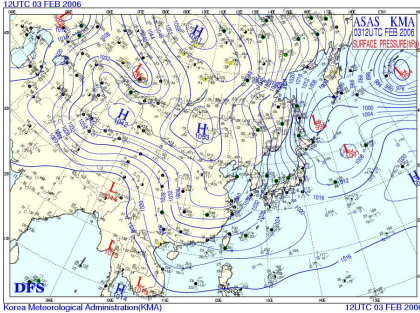
사화2부

기사 작성일 : 2006년 02월 0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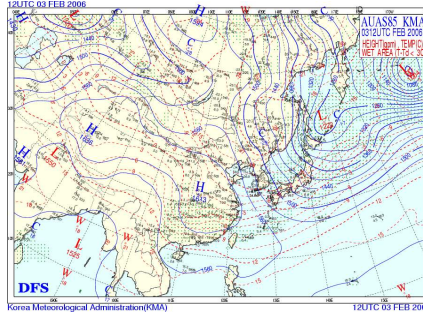
2006. 2. 7. 매일신문

□ 한파(2006. 2. 3~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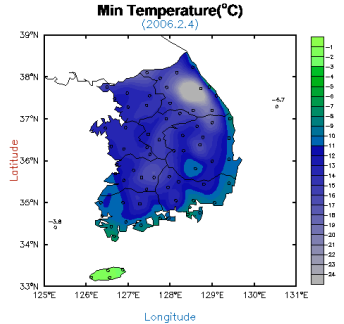
2006년 2월 3일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가 나타났음. 2월 4일 최저기온이 봉화 -18.0℃, 의성 -16.3℃, 안동 -14.5℃, 영주 -13.5℃를 기록하였음.



지상일기도(2006.2.3. 21시)



850hPa일기도(2006.2.3. 21시)



일최저기온 분포(2006.2.3)

○ 지점별 최저기온(2006.2.3~2.5)

지점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지점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대구	-8.8	-10.1	-6.4	영주	-11.5	-13.5	-12.1
울진	-7.9	-8.7	-7.7	문경	-11.8	-12.6	-11.8
안동	-11.0	-14.5	-12.7	영덕	-8.5	-10.6	-7.5
상주	-11.8	-12.4	-9.0	의성	-13.0	-16.3	-14.5
포항	-7.6	-10.7	-7.2	구미	-10.3	-12.1	-9.8
봉화	-14.3	-18.0	-16.2	영천	-10.5	-12.6	-9.6

○ 한파 관련 기사

반짝 입춘 한파 6일부터 예년기온 회복

반짝 입춘 한파가 6일부터 서서히 풀리겠다.

3일부터 쉼 없이 이어진 한파는 입춘인 4일에도 이어져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1℃까지 내려간 것을 비롯해 경북 봉화 영하 18℃, 안동 영하 14.5℃, 구미 영하 12.1℃, 포항 영하 10.7℃ 등 매서운 추위를 보였다.

대구기상대는 "한낮 최고기온도 3일과 비슷한 영하 4℃~영상 1℃까지 내려가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며 "갑작스런 추위에 따라 수도관 등 각종 시설물을 동파당하거나 농작물 냉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돼 대구경북의 5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1℃ 분포로 솟겠으나 6일부터 서서히 풀려 낮 최고기온이 0℃~영상 5℃까지 올라가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한운조기자 cgdream@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06년 02월 04일

입춘추위 매섭다 대구최고 1℃

대구경북 주말날씨

기사 입력시간 : 2006-02-03 14:24

동장군의 봄 시샘이 예사롭지 않다. 입춘(立春)인 4일, 대구경북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으로 접어들며 '입춘추위'가 위세를 더할 전망이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4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 아침 최저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 같은 추위는 낮 동안에도 계속돼 한 낮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대는 내다봤다.

4일 지역별 기온은 대구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1도를 기록하겠고 경북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16~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2~1도 분포로 3일보다 더 떨어지겠다.

이번 추위는 시베리아 부근에서 생성된 찬 대륙성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5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관 등 동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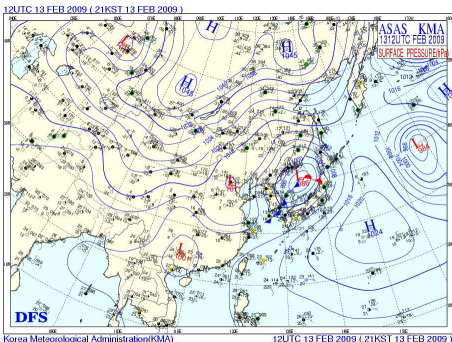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2006. 2. 4. 매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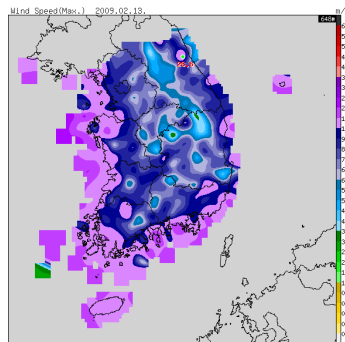
2006. 2. 3. 대구일보

□ 강풍, 풍랑(2009.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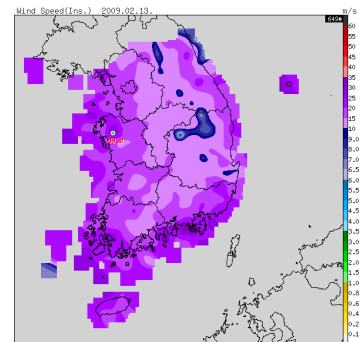
북한을 통과하여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음. 특히 저기압 후면의 한랭전선이 돌아나가면서 9~20m/s의 돌풍이 불어 시설물 피해,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하였음.



지상일기도(2009.2.13.21시)



일 최대 풍속(2009.2.13)



일 최대순간 풍속(2009.2.13)

○ 지점별 풍속 자료(2009. 2. 13~2.14)

일자	지 점	대구	울진	상주	안동	포항	봉화	영주	영덕	의성	구미	영천
2.13	일 최대 풍속(m/s)	5.8	10.7	7.0	5.1	7.7	4.4	12.7	7.8	6.2	5.3	7.0
	일 최대 순간 풍속(m/s)	10.9	20.3	14.2	9.3	14.3	10.3	16.7	17.1	11.6	12.4	12.7
2. 14	일 최대 풍속(m/s)	4.8	5.3	7.4	5.0	4.9	6.6	10.6	9.2	4.0	5.6	8.0
	일 최대 순간 풍속(m/s)	8.1	8.7	10.6	8.9	9.3	11.7	15.3	26.6	6.7	8.4	14.2

○ 강풍, 풍랑 피해 관련 기사

대구경북 최대 초속 20.3m 강풍...피해 잇따라

갑작스런 강풍으로 대구경북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삿짐을 옮기던 철제 고가사다리 추락하고 항공기 결항, 간판 낙재물 전복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대구는 0시50분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9m를 기록, 평일 초속 2.3m보다 강한 바람이 불었다. 경북 울진에선 초속 20.3m의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했으며 오전 3시를 기해 울진, 영덕, 포항, 경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13일 낮 1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용 고가 사다리차의 철제 사다리가 강풍에 꺾이면서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다리가 떨어지면서 17층, 12층, 10층 등 모두 6가구의 발코니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 고가 사다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강풍에 꺾여 15도가량 기울면서 17층 발코니 창문과 에어컨 실외기를 부수고 떨어져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착한 대형크레인이 사다리에 고리를 거는 순간 또다시 강풍이 몰아치면서 사다리 가운데 부분이 마해 풀장나 끈주박질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사고를 수습하려던 철내에 사다리가 추락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단 강풍으로 인한 사고로 보면서 크레인 기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의 한 타이머 판매점에서는 20m 높이의 쌓아놓은 타이머들이 기울어져 크레인으로 바로잡는 작업을 벌였으며 남구 봉곡동 미모(48세)의 슈퍼마켓에서는 강풍에 전면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했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5분 대구발 제주행 대한항공 1801편 등 모두 6편의 여객기가 결항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임시편을 만들어 오후 3시, 오후 4시 10분 대구발 제주행 등 2편을, 아시아나는 오후 1시 35분 대구발 제주행을 운행했다.

대구기상대 관계자는 "14일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나 공사장·사업장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병고기자

기사 작성일 : 2009년 02월 14일

2009. 2. 14. 매일신문

indays

영남브리핑

대구시 강풍에 20층 사다리차 '기우뚱'

13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L아파트 10대 앞에서 **이삿** 중이던 20층짜리 **고가사다리차**가 강풍에 정위치를 이탈,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20층에 걸쳐 있던 **고가사다리차**가 갑작스런 강풍으로 15도 가량 기울면서 19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파손시킨 뒤 17층 베란다에 걸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 주차토록 하는 한편 고가사다리차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사다리차를 17층 베란다에 임시로 고정시켰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고가사다리차를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기상대는 이날 오전 대구지역 순간최대 풍속이 초속 9.7m까지 나타나는 등 하루 종일 국지적 강풍이 예상된다는 **시정**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09-02-13 11:53:45 입력

[stop] [이메일] [프린트] [스크랩하기] [스크랩하기]

2009. 2. 14. 영남일보

□ 겨울 가뭄, 산불(2000. 2.)

2000년 2월은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0.3mm로 1973년 이래 두번째로 적었음.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식수난이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음.

○ 대구·경북 2월 강수량 최저 순위

순위	1	2	3	4	5
강수량(mm)	0.0(1977년)	0.3(2000년)	1.1(2002년)	3.5(2008년)	6.1(1980년)

○ 지점별 실효습도

지점	02월 24일		02월 25일		02월 26일		02월 27일		02월 28일	
	실효습도	최저습도	실효습도	최저습도	실효습도	최저습도	실효습도	최저습도	실효습도	최저습도
대구	24.8	12	24	11	26	24	25.1	15	23.4	11
울진	33.6	17	32.7	21	34	25	34.3	18	38.5	24
안동	31.6	12	32.6	16	35.3	23	34.5	20	31.3	12
포항	22.3	10	22	12	23.2	19	22.8	15	26.2	11
봉화	40.6	20	41.7	22	41.9	30	40.6	27	40.2	30
영주	31.8	19	31.6	19	32.6	28	32.7	27	30	19
문경	31.4	17	31	19	33.5	29	35.6	28	34.2	20
영덕	30.7	20	30.8	17	31.2	23	30.6	21	34.8	19
의성	32.1	14	33.1	16	33.8	23	32.9	19	30.7	15
구미	32.1	18	31.9	20	33.2	30	31.5	22	29.6	18
영천	31.9	16	31.6	16	32.9	27	31.7	20	29.6	16

실효습도 35%이하 : 실효습도 25%이하

○ 가뭄, 산불 피해 관련 기사

[울진,포항]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경북도내 야산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오전 3시30분을 울진군 기성면 발흥리 산 162해발 600m 산 정상에서 서 **화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9시 현재 계속 번지고 있다. 불이나자 주민 과 **소방대원** 등 300여명이 **동원**되고 **헬기** 2대가 출동했으나 산세가 가파른 데다 바람이 **세차**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낮 12시43분쯤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발파재**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소나무** 200여그루 등 600여평의 산밭을 태우고 40분만 진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포항시 북구 흥중동 흥중중학교 뒷산에서 불이 나 **임야** 200여평을 태웠으며 지난 8일에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갈길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900여평의 야산을 태우는 등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기상대는 "최근 **동해안**지역에는 초속 4.3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양분간 비가 올 확률이 없는 것으로 전망돼 산 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 href="mailto:mcs12@yeongnam.com"/>마창성기자mcs12@yeongnam.com/ap

2000. 2. 16. 영남일보

가뭄 지속...하우스 영농 타격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이 하우스 영농 차질 등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주시 농업기술개발센터에 따르면 울릉여 상주지역 전체 강수량은 25.9mm로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 때문에 오이 딸기 상추 시금치 등 하우스 영농에 나서고 있는 농가들은 주변 수원이 말라 영농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양파의 경우 이말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성장에 큰 지장이 예상되고 있다.

농민들은 다음달부터는 물가기가 등 본격 영농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상주시 모서 모동 화북 등 산간지는 용수가 거의 말라 배를 태우고 있다.

상주시는 가뭄 해소를 위해 11억원의 사업비로 양수 및 배수장 6개소를 설치하고 5억원을 투자해 농업 및 생활용수 양분관정 3개소도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張永華기자

2000. 2. 23. 매일신문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경북도내에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거나 제한급 수를 받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안동** 일 안천 등 도내 주요 하천은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 영농철을 앞두고 심각한 **농업용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계속된 겨울가뭄으로 22일 현재 도내에서 식수공급이나 제한급수를 받는 주민이 1천600여가구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지역의 경우, 도산면 태지리 주민20가구가 지난해 26일부터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도산면 문배리 20가구, 길안면 현하2리 10가구, 풍산읍 **죽간리** 16가구, 남선면 **도료리** 26가구, 일직면 **물리** 50가구 등 현재 5개 읍면 160가구가 600여주민들이 소방차 급수에 의존하고 있다.

고령군 삼림면 **울마리** 20가구와 의성군 안계면 **인경2리** 8가구, 청송군 파천면 **홍점리** 15가구, 영양군청기면 **도곡2리** 10가구, 수비면 **오기2리** 10가구가 등도 최근 식수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상습가뭄지역인 경주시 감포읍지역에도 주민 1천600가구 5천600여명 이 이미 지난해 12월16일부터 3개월째 제한급수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대 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식수부족현상이 확산되자 도내 각 **소방**서는 소형급수차를 **동원**해 마을마다 이들에 한 번씩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식 수난을 겪는 주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급수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도 심각해 안동시 길안면 길안천은 유지수부족으로 하천바닥이 말라 인근 **벼식재배**사 등지는 물을 구하지 못해 배를 태우고 있다.

경북도 농경관계자는 "가뭄으로 급수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달내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농작물**들의 식수난은 더 커지고 농작물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사취보

2000. 2. 23 영남일보